

해방 50년 불교학 50년

특집 인재불사-불교중흥의 초석이다

독자적 학풍 형성... 사회문제 해결책 모색

한국에서 현대적인 불교학 연구가 시작된 것은 언제일까. 정략하게 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동국대학교의 모체인 명진학교가 개교한 1906년 이후라 할 것이다. 개항과 함께 4대문 안에 승려들의 출입이 허락된 이후 불교계의 뜻있는 승려들은 현대식 불교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서울에 명진학교를 설립했다. 명진학교는 중앙학원, 해화전문 등으로 교명을 변경하며 해방이 될 때까지 많은 불교계의 인재를 배출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전문적인 불교학자를 양성할 정도는 아니었다. 따라서 보다 깊은 연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일본이나 구라파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

한국에서 현대적인 불교학 연구가 시작된 것은 언제일까. 정략하게 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동국대학교의 모체인 명진학교가 개교한 1906년 이후라 할 것이다. 개항과 함께 4대문 안에 승려들의 출입이 허락된 이후 불교계의 뜻있는 승려들은 현대식 불교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서울에 명진학교를 설립했다. 명진학교는 중앙학원, 해화전문 등으로 교명을 변경하며 해방이 될 때까지 많은 불교계의 인재를 배출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전문적인 불교학자를 양성할 정도는 아니었다. 따라서 보다 깊은 연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일본이나 구라파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

Table with columns: 연도, 주제, 인물, 교단사, 경전, 문학, 교리, 종파, 예술, 총계, 비고. Rows show data for 1930-44, 1945-60, 1963-70, 1971-80, 1981-92.

인물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 수 있다.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발표된 석사학위 논문 중에서는 1962년도에 김해동이 '인과론 연구'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래 14편의 교리 관련 논문이 발표된다. 교단사 연구 석사학위논문이 10편임을 감안한다면 연구의 경향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Kim Dong-hwa, Baek Seung-uk, Kim Sang-nok, Jo Myeong-gak



Journal cover: Buddhist Studies

명진학교 개교

명진학교나 중앙불교전문학교, 혹은 해화전문학교에서 수학한 승려들이 당시의 일본으로 유학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했다. 그것은 지리상의 여건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식민지시대의 한국불교계는 많은 유학생을 외국에 보내어 선진 문물을 수용하고자 했다. 아쉽게도 그것은 해방 이후 비구와 대치의 다툼 속에서 불교사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지만 당면한 한 절에서 60여명을 유학 보낸 기록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해방 이후 한국불교학의 기초를 다진 것은 물론이다.

인물·교단사에 치중... 80년 이후 연평균 50편 발표 교리·포교론 등 연구 폭 넓혀야... 종단지원 아쉬워

관한 논문이 현저도 발표되지 않은 것은 전문불교학자의 부족이거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교단사나 인물에 관한 연구가 많은 것은 한국 학자들이 연구한 것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방 이후 1950년대의 불교학 연구는 준비하는 시기라 보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제대로 분류하면 인물과 교리, 경전에 대한 연구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연구 내용도 인도, 중국, 한국 등에 걸쳐 폭넓게 걸쳐 있다. 제 과학과의 접촉 인물과 교단사에 관한 논문도 사상사나 사회사적인 측면에서 의례, 종파의 성립, 해외자교의 발굴 등에 집중하고 있다. 전문 연구자가 많아진 만큼 분야가 다양해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정부의 국외협력 정책과 연계하여 연구된 경전연구와 인도철학에서 발표된 석사학위 논문은 11편 중에 4편이 교리나 경전에 관한 연구이다. 불교학 연구가 비로소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1세기의 과제가 인간과 환경, 인간과 과학, 인간과 인간 사이의 자유·평화·화합의 문제라면 불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불교학의 숙제 한편 불교학자들의 신진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꾸준히 연구해야 할 과제다. 한국의 불교학 연구는 어려운 시대에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연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간의 논문이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미흡한 실정을 거두었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제는 그동안의 연구가 인물과 교단사에 치중되어 있는 점

1995 새해 아침 이 기쁜 오늘, 부처님 자비 가득한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Advertisement for Buddhist organizations: 한국 불교 태고종, 대한 불교 천태종, 대한 불교 진각종, 대한 불교 법화종. Lists members and addresses.